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9.(목) 배포즉시 배포 2023. 11. 9.(목)

동아프리카의 수출 교두보, 탄자니아와 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 한-탄자니아 간 무역·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추진 제안**
- **니켈·흑연 등 핵심 자원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새로운 수출시장이자 주요 광물자원 공급처인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탄자니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1. 8.(수) 탄자니아의 행정수도 도도마를 방문하였다.

안덕근 본부장의 이번 출장에는 수출입은행, 한국전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철도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으로 구성된 민관경제사절단이 동행하여 아프리카 내 우리나라의 최대 공적 개발원조(ODA) 지원국이자 자원 부국인 탄자니아와의 통상, 에너지 부문 사업(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 본부장은 도토 비테코(Doto M. Biteko) 탄자니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을 예방하여 수교 이후 30년 이상 쌓아온 관계를 발판으로 새로운 동반관계(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하고, 산업, 통상, 광물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과 함께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비테코 부총리는 “탄자니아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면서 탄자니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얘기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라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표하였다.

이어서 안 본부장은 익사우드 키가헤(Exaud S. Kigahe)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무역·투자 부문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논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면담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부재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양국 간 공동선언문 서명이 잠정 연기되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 교류 또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안 본부장은 안토니 마분데(Anthony P. Mavunde) 광물부 장관과 2차전지 핵심 원료인 니켈, 흑연 등 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헨게 천연흑연 광산(현재 15% 지분)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권현철 (044-203-5720)
		담당자	사무관	김기훈 (044-203-5725)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미 (044-203-5740)
		담당자	사무관	박용균 (044-203-57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